



케이크 위에 결실 맺은 사랑의 열매

희망 2006 이웃사랑 바자회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06 이웃사랑 함께해서 행복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해 12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에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주최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달콤한’ 이웃사랑을 요청 받아 자선을 위한 케이크 판매에 나섰다. 글_김미선 기자·사진_전문식



이 세상에서 최고로 ‘달콤한’ 케이크는 두말한 나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케이크다. 하물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 전하는 케이크는 달콤한 맛을 넘어서 훈훈한 기쁨으로 연결되는 최고로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케이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06 이웃사랑 함께해서 행복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해 12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에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주최했다. 사랑의 열매로부터 ‘달콤한’ 이웃사랑을 요청 받은 (사)대한제과협회는 CJ(주)베이커리사업부 ‘푸레쥬르’와 손잡고 케이크 자선 판매에 두 팔 걷어부쳤다.

KBS 1TV를 통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으로 특별 생방송된 이날 행사는 300개나 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앞장세운 (사)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해 빗갈 고운 크리스마스카드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한 지역별 주부클럽, 이웃을 위해 재고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의류업체까지 다양한 단체와 기업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이날 이웃사랑바자회로 모인 판매대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됐다. (사)대한제과협회는 김홍연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이 행사 진행을 도맡아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로 모인 200만 원을 ‘사랑의 열매’ 성금으로 선포 기탁했다.



1,2 이웃사랑의 뜻을 담은 케이크 데코레이션은 바자회 참가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제과인의 뛰어난 솜씨는 물론이고 이웃사랑 의지까지 확실하게 드러낸 훌륭한 기회였다. 3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열린 덕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4 이웃사랑의 뜻을 담아 꾸며진 크리스마스 케이크. 5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선 여러 사회단체와 기업들. 고객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노래가 돼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6 이날 케이크 판매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기탁됐다.

케이크 판매 전액 '사랑의 열매' 기부

(사)대한제과협회 부스 한쪽에서는 프로 제과인의 화려하고 정교한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따라 참관객이 직접 케이크를



꾸며보는 행사가 진행돼 바자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케이크 구매열기를 한층 돋워주었다. 케이크 위에 행사 슬로건 '희망 2006 함께해서 행복해요'가 또렷이 입혀질 때는 물론 트리모양으로 멋을 낸 초콜릿장식물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관람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라했다. 이날 실연해보인 케이크 데코레이션은 따뜻한 나눔의 뜻을 담고 있어 다른 어떤 화려한 케이크보다 훨씬 돋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빨간 '사랑의 열매'를 이웃사랑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여진 성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구석구석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단체다. 지난 해 12월 1일 텔런트 채시라와 가수 비가 공동모금회 홍보대사 자격으로 노무현대통령과 모금회 명예회장인 권양숙 영부인에게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는 행사로 시작한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은 1월 16일 현재 1천 316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해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제과업계의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은 제과인을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희망의 반딧불이가 된다. 케이크로 실천하는 이웃사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제과인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실천이기 때문이다. ☺

Special Thanks



CJ(주) 푸레쥬르

이번 바자회는 CJ(주) 푸레쥬르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협찬으로 이뤄졌다. 제과업계 최고 대목 '크리스마스'를 딱 이틀 앞두고 있던 탓에 업계 전체가 너도나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사)대한제과협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푸레쥬르'는 제과업계가 앞장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바자회의 취지 하나만 믿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협찬에 두 말 없이 선뜻 동참했다.

